

제41장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성모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으므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모셔 오는데 손색이 없는 분이셨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께 드리는 신심과 성모님을 닮으려는 노력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레지오는 성모님이 지니신 사랑과 똑같은 정도의 강렬한 사랑을 그 특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레지오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을 세심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레지오 대열에 참여할 때

레지오 대열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이나 국적 또는 피부색 등의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만이 유일한 검토 대상이다. 레지오의 사도직은 행동단원으로서 수행하는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이를테면 누룩의 역할처럼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를 레지오의 활동 영역 안에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각 계층과 구역을 대표하는 신자들을 레지오 대열 안에 단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레지오 대열 안에서

레지오 대열 안에서는 단원들 사이에 가식 없는 순수성과 진솔한 동료애만이 깃들여 져야 하며, 단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으로서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앞서 우선 동료 단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으뜸가는 자격 요건인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레지오의 정신과 이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강렬한 사랑과 연민이다. 따라서 이러한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내뿜으려면 우선 레지오 안에 있는 화로(火爐)에서부터 활활 타올라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레지오 대열 안에서 단원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이윽고 그 사랑은 널리 밖으로 옮겨져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단원들 사이에 벌어진 틈을 사랑의 다리로 잇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틈을 사랑으로 잇는 행위의 첫걸음이다.

3. 다른 단체와의 관계

레지오는 교회의 선교 사명과 부합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 단체의 일에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이 되는 조건이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 모두를 레지오 대열에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일은 할 수 있다. 단원들은 사도직 활동이나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다른 단체와 어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든 간에 자신이 레지오 단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 자체가 위촉받을 정도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단체에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본 제39장 6절 ‘활동은 브레시디움이 주관한다.’와 8절 ‘레지오 활동의 본질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4. 교회 사목자에 대한 자세

레지오 단원은 교회의 사목자들을 영적 아버지이며 목자로서 자녀다운 사랑으로 공경해야 한다. 단원들은 사목자의 걱정거리를 나누어 짊어지고 기도와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도와야 하며, 사목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무를 한층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고 성사의 은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목자들과 접촉하도록 힘써야 하며, 혹시 사목자와의 관계가 손상되어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성직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특별히 필요한 활동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을 매우 꺼릴 수 있으므로, 때로는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는 대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얼마만큼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레지오는 양성을 통하여 레지오 단원들이 사제와 영혼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또 이 일을 조심스럽고 세련된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특출한 사랑의 발로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사업을 돕도록 불리었으며, 모두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이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1코린 13,1-8)

부 록 1

역대 교황들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 온 서한 및 메시지

교황 비오 11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1933년 9월 16일

“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업을 펴고 있는 레지오 마리아에 특별한 축복을 보냅니다.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 주며, 단기에 새겨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모습이 높고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레지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올해는 교회가 성모님께서 구원의 협력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 되심을 선포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착수한 기도와 활동의 사도직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구원의 협력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주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교황 비오 11세

교황 비오 12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1953년 7월 22일

아일랜드 더블린 시
레지오 마리아 콘칠리움
프란치스 M. 더프 귀하

친애하는 더프씨,

교황 성하의 분부에 따라, 약 30여 년 전 가톨릭의 옥토인 아일랜드에서 창설된 레지오 마리아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날 레지오가 온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충성스럽고 강력한 성모님의 군대로 발전해 온 것을 지켜보셨으며,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레지오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귀하와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군사인 레지오 단원들이 그 동안 쌓아 올린 훌륭한 공적에 대해서 성하로부터 치하의 말씀을 듣게 됨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치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의 성스러운 사명에 레지오 단원들이 더욱 열심히 협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레지오 단원들의 기여도는 주로 단원들의 건전한 영적 수련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원들이 영적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를 받아 참된 사도직 정신을 튼튼히 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교황 성하의 가르침에 순응하며, 교구 직권자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이처럼 참된 평신도 사도로서의 영적 특성을 지니게 될 때, 그들은 거룩한 용기를 지니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싸움을 펴는 교회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하께서는 온 세계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성모님의 전구를 기원하십니다. 또한 귀하와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

시로 교황 강복을 내리셨습니다.

경의와 믿음을 보내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황청 국무장관 서리

J. B. 몬티니

교황 요한 23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메시지

온 세계의 레지오 마리아 간부들과 단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시하고, 또한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보람찬 활동이 더욱 풍성한 영적 결실을 거두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마음으로부터 특별한 교황 강복을 베풁니다.

바티칸에서 1960년 3월 19일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지오 단원들에게, 1960년 7월 13일

교황 요한 23세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1965년 1월 6일

레지오 마리아 끈질리움
프랭크 더프 단장 귀하

친애하는 더프씨,

교황 성하께서는 귀하가 최근에 올린 충정 어린 서한을 읽으시고 매우 기뻐하며 만족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이 서한을 통해, 가톨릭의 나라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풍토에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대륙에 유익한 활동을 펼친 레지오 마리아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가 이 같은 치하를 마땅히 받아야 할 단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레지오가 신심 깊은 목적을 지니고 수많은 사업을 매우 슬기롭게 창안하고 발전시켜, 가톨릭 사도직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조직체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하께서는 전에 국무원에 봉직하고 계실 때, 귀하와 여러 차례 만났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당시 귀하와의 대화를 통해, 레지오 운동의 생명력과 활력의 비결인 레지오 정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단원들의 굳건한 내면 생활, 레지오의 규율, 이웃의 구원을 위한 헌신적 노력 및 교회에 대한 확고부동한 충성심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받고 성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레지오 정신은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 맡고 계신 임무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레지오는 모든 단원들의 모범이시고 인도자이시며 기쁨이시고 후원자이신 성모님을 모시고 온갖 훌륭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셔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레지오를 통해서, 모든 사도직 활동이 성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격려와 감화를 받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특히 신앙이 침해당하고 박해받는 곳에서, 이미 많은 열성적인 사도들과 영웅적인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을 길러 낸 레지오 정신을 크게 신뢰

하고 계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가 이미 이룩한 성과로 보아, 단원들의 정열과 사도직 노력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가리라고 확신하고 계시며, 귀하와 동료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십니다. 아울러 성하께서는 레지오 단원 모두가 항상 교회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지니고 사도직을 수행하기 바라시며, 특히 주교들의 뜻에 따르고 다른 모든 가톨릭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의 모든 각급 단원들을 복되신 성모님의 자모적 보호에 맡기시며,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레지오가 펴고 있는 모든 활동에 아버지로서의 특별한 교황 강복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추기경 A. G. 차코냐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태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하신 훈화의 일부

1982년 10월 30일

1.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우선 이태리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단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더구나 여기 오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동안 온 세계에 걸쳐 급속도로 성장한 저 거대한 사도직 운동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더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단체는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오늘날, 온 세계의 수많은 교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비오 11세를 비롯한 나의 선임자들께서도 레지오 마리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바 있으며, 나 자신도 1979년 5월 10일 여러분의 대표자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 내가 과거에 레지오와 접촉하게 되었던 일들을 즐겁게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파리, 벨기에, 폴란드에서 레지오 마리아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로마의 주교가 된 뒤에도 본당들을 사목 방문하는 길에 레지오 단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단체의 순례자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의 핵심과 존재 방식이 지니는 본질적 요소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누룩이 되라는 소명

2.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개인 성화를 이루고자 열망하는 평신도 단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귀하고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모든 가톨릭 평신도들이 이 이상을 목표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평신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증거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다운 사제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0항), 또한 평신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치 육체 안에서 영혼이 활동하듯이 세상 안에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요구합니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8항).

평신도로서의 고유한 소명, 곧 하느님 백성들 안에서 누룩이 되고, 현대 세계에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부어 넣으며, 사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모셔 가는 일들은 분명 교회적인 임무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결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교회의 구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살아 있는 도구가 되십시오. 특히 오늘날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제 수가 줄어들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가 자율적 성격을 띠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더욱 어려운 때이므로,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3항).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는 참으로 널리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주어진 소명에 자신을 맡기고 행동에 나서는 일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고무되어 마땅한 일입니다. 평신도의 활성화는 곧 교회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레지오는 이태리 사회와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 단원들이 보여 준 레지오의 모범적이고도 빛나는 헌신 행위들 -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활약한 에델 쿼인(Edel Quinn),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활동한 알폰소 람베(Alfonso Lambe)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순교했거나 활동 전선에서 산화한 수 천 명의 레지오 단원들을 보더라도, 단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더욱 막중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성모님의 정신과 염원을 지닌 단체

3. 여러분의 단체는 뚜렷하게 성모 마리아의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레지오가 성모님의 이름을 그 선명한 깃발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마리아의 영성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영성과 사도직 활동이 성모님과의 결합이라는 강력한 원칙과 성모님께서 구원 사업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진리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상인 모든 사람을 성모님의 정신과 염려로 섬기 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개자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60항).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변호자, 협조자, 영원한 도움, 중재자, 교회의 어머니 등의 칭호로 동정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 활동의 탄생과 성장은 성령의 그느르심으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계시는 곳에는 또한 그 성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성모님으로부터 떠날 때는 조만간 성자로부터도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동정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지오는 성모 신심을 널리 확산시키고 부흥시킴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널리 퍼뜨리고 탄생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통하여 세상 모든 이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를 더욱더 널리 알리고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레지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는 교황으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2008년 12월 5일

더블린 시

레지오 마리아 끈칠리움

토미 맥케이브 단장 귀하

친애하는 맥케이브 씨,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레지오 마리아 끈칠리움이 더블린에서 1.000차 회합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수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너그러이 수행하고 있는 봉사에 감사하는 계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로 레지오 단원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천상 보호 아래 모든 사람을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귀하가 뜻하는 바와 끈칠리움의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하와 레지오의 모든 단원들을 사도들의 모후이시며 사랑으로 가득하신 성모님의 간구에 의탁하시면서 정성어린 교황 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대주교 페르난도 필로니

국무장관

부 록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발췌문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을 읽을 때에는 일부만 읽지 말고 헌장 전체를 읽어야 한다. 이 헌장이 공포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로써 교회는 더 위대한 한 삶을 더욱 확실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어머니시라는, 레지오의 본질과 특별히 관련 있는 내용을 발췌해 놓았다. 그러나 이 발췌문이 헌장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헌장은 성모님을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가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구성원으로 소개하면서 성모님을 새로운 배경 아래 드러내고 있다. 교회 구조의 전체적인 비율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성모님을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대해 드러야 한다.

60항.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시다”(1티모 2,5-6).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준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에서 기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달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끌어 올리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 결합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

61항.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천주의 성모로 예정되었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

다.

62항.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어떠한 피조물도 강생하신 말씀 곧 구세주와 결코 똑같이 헤아려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교역자나 신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듯이, 또 하느님의 유일한 선성이 피조물들 안에서 실제로 갖가지 모양으로 퍼져 나가듯이,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킨다. 마리아의 이러한 종속적인 임무를 교회는 의심 없이 믿고 끊임없이 체험하며, 신자들의 마음에 권장하여 어머니의 이러한 도우심과 보호로 중개자 곧 구원자를 더욱더 가까이 따르자고 한다.

65항. 교회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이미 완덕에 이르러 어떠한 티나 주름도 없이 서 있지만(에페 5,27 참조),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성덕 안에서 자라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눈을 들어 뽑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본다. 교회는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받들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며 드높은 강생의 신비를 공경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신량을 닮아 간다. 마리아께서는 실제로 구원의 역사 속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시어 신앙의 최고 진리를 어느 모로 당신과 결합시키고 반영하시므로, 찬미와 공경을 받으실 때에 당신 아들과 그 희생으로 또 성부의 사랑으로 신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자신의 탁월한 전형과 비슷해져, 끊임없이 믿음과 바람과 사랑 안에서 나아가며,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도직 활동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우러러보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바란다. 그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저 모성애의 모범이 되셨으며, 그 모성애로 교회의 사도직 사명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 나도록 협력하는 모든 이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

“주님 탄생 예고를 통하여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교회는 이미 그 첫 모습을 은밀히 드러낸다. 주님 탄생 예고 때에 예수님과 마리아에게서 아들과 그 어머니로 구성된 사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그 구성원인 사회, 구세주와 구세주께서 최초로 구원하신 이가 그 구성원이 사회가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사회,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마리아 안에서 그 본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때부터 그 주요 특성도 얻는다. 완전히 하나이며 거룩하다는 특성이요, 실제로 보편적(가톨릭)이라는 특성이다.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보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 첫 모습을 은밀히 드러내던 때에 없었던 것은 오로지 행동하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톨릭 신앙뿐이었다.”(로렌틴 Laurentin)

부 록 3

1983년 『교회법전』 -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제224-231조)

제 224 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제 225 조 ①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②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228 조 ① 책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②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제 230 조 ①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②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부 록 4

로마 군단

로마 군단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전투 부대였다. 그런데 그 무적의 힘을 지니게 된 비결은 바로 병사들의 놀라운 정신력에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이 소속한 군단의 통제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죽이고 자신을 몰입시켜야만 했다. 지휘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요구되었으며, 지휘관의 업적과 관계없이 또는 병사 자신의 개인적 선호도와 관계없이, 지휘관이 ‘내 뜻을 따라라!’ 하고 명령하면 복종해야만 했다. 진급을 못 해도 불평할 수 없었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오직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지휘관은 물론 동료 병사들과도 결속되어 있었으므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두가 움직였다. 그리하여 이 로마 용사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상을 정복했고, 이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로마 제국의 위엄과 로마 법률이 유지되었다. 이들은 충성심 때문에 적과 대면했을 때 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으며, 불굴의 용기와 완강한 인내심 때문에 적군은 이들 앞에서 지쳐서 항복하거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전위 부대로서 제국을 완전하게 방위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었다. 폼페이를 발굴할 때 로마 군단의 백인대장이 자신의 근무 위치에서 선 채로 미이라가 되어 발견된 사실이나, 막시미아노 황제의 박해를 받아 성 마우리시오, 성 엑수페리오, 성 칸디도 및 많은 장군들과 더불어 대량 학살을 당한 저 유명한 테베(Thebes) 군단의 이야기는 모두가 이들의 굽힐 줄 모르는 영웅적 행적을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로마 군단의 정신은 권위에 대한 복종심, 변치 않는 의무감, 장애에 부딪혔을 때의 인내심, 난관을 이겨내는 지구력, 사소한 의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충성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직한 복무 자세가 이 이교도들이 추구했던 이상형이었다. 레지오 마리아에 반드시 이와 같은 굳센 정신을 지녀야 한다. 다만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봉사의 비결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성모님과 일치함으로써, 이러한 강건한 정신을 부드럽고 감미로운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다름 뿐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마르 15,39).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마 군단의 군사들이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다.

로마 교회라고 불리게 될 미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임무를 이미 골고타에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도 로마인들이었고,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들어 올린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장차 교회의 일치를 수호하게 될 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기를 거부하였다. 신앙을 간직하게 된 이 군사들은 나자렛 사람이 왕이시라는 새로운 믿음의 주요 교리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옹호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은 희생 제사가 완성되는 순간,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외쳤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차 온 세상의 모든 길을 복음으로 통하게 만들어 줄 바로 그 창(槍)으로 주님의 성심을 열어 그 성심으로부터 축복과 초자연적 생명이 흘러 나오게 했다. 모든 인류는 구세주의 죽음에 대한 죄책이 있으며, 자신들의 손을 주님의 성혈로 적시었고, 그 때문에 미래의 교회는 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할 진데 로마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동이었지만 이미 골고타에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숙명을 처음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등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얼굴은 영원한 도성이 있는 서쪽으로 향하게 세워져 있었다.”(볼로 Bolo : 골고타의 비극)

부 록 5

우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신심회

1.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 사제는 그의 저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이 신심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심회를 만들기 바란다는 자신의 소망을 적어 놓았다. 이 소망은 1899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신심회(the Confraternity of Mary, Queen of All Hearts)’가 설립됨으로써 실현되었다. 현재 이 신심회는 ‘마리아 회(the Company of Maria)’ 즉 ‘몽포르 선교회(the Montfort Missionaries)’가 관장하고 있다.

2. 이 신심회는 세례성사 때의 맹세를 실천하고자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기를 원하는 신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가르쳐 준 참된 성모 신심을 실천해야 하는데, 성인은 이 신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이 신심은 성모님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에 있다. 우리가 성모님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감각과 지체를 포함한 우리의 몸
- (2)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
- (3)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 재화
- (4)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몸과 영으로 살고 있는 삶에서 소유한 모든 것과 장차 자연 질서와 은총 질서와 하늘나라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친다. 한 푼의 돈, 머리카락 한 오라기, 가장 작은 선행 하나라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봉헌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한다.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영예 이외에는 아무 것도 대가로 바라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설사 성모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바쳐야만 한다.”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21항)

3. 회원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람이 되신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모님을 통하여 자신을 봉헌한다. 이 봉헌은 반드시 합당한 준비를 갖춘 후, 성모님의 축일과 같은 어떤 특별한 날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이 봉헌은 매일 갱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봉헌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지극히 사랑하옵소서 예수님,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하신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바치옵니다.” 이 기도는 ‘기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신자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을 봉헌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봉헌 기도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를 사용해도 된다.

(나) 봉헌자 이름을 회원 명부에 등록한다. 주요 국가의 신심회 지역 본부는 다음과 같다.

영 국 Monfort House, Burbo Bank Road, Liverpool L23 6TH, UK

미 국 Monfort Fathers, 26 South Saxon Ave., Bay Shore, N.Y. 11706, USA

프랑스 Maison Mère de la Sagesse, 3 Rue Jean Paul II, BP79 85292 St Laurent Sur-Sèvre, France

벨기에 Dietsevest 25 - 3000 Leuven, Belgium

캐나다 4000 Bossuet, Montreal, Quebec H1M 2M2, Canada

이태리 via Romagna 44, 00187 Roma, Italia

(다) 회원들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자렛에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늘 습관적으로 성모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야 한다. ‘늘 습관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봉헌의 핵심이다. 모든 행위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위하여 함으로써, 언제나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휘하시며, 그 열매를 관리하시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6장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이 신심회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몽포르 가족과 영적 친교를 이루게 된다. 회원들은 이 영적 친교를 상징하고 완성하는 다음과 같은 전례 축일들을 기념할 것이다: 이 신심회의 주요 축일인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루도

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사제 기념일(4월 28일).

회원들은 또한 성모님께서 몽포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 자산을 공유한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놀라운 방식으로 온전히 내어놓으시는 분’이시다.”(하늘의 모후, 1992년 5·6월호, 25쪽)

5. 이 참된 신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쓴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소책자 『마리아의 비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특히 교황 성 비오 10세는 저 아름다운 회칙 『Ad Diem Illum(그 지극히 기쁜 날 에)』에서 성모님의 보편적 중재와 영적 모성에 관한 가르침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회칙은 실질적으로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인의 『참된 신심』을 풀이해서 정리한 것이다. 교황은 이 책의 열렬한 흠모자로서, 모든 이가 이 책을 읽도록 특별히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교황 강복을 베풀었다. 게다가 성모님에 관한 이 회칙에는 성모님의 위대한 종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가장 잘 알려진 사상만이 아니라, 성인이 사용하였던 표현들도 자주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뮈라 Mura : 그리스도의 신비체)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저 위대한 강생의 신비를 기념하는 3월 25일에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크게 들어 높여 존중하여야 한다. 강생의 신비는 회원들의 ‘참된 신심’에 어울리는 신비이자, 성령께서 고취해주신 신비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이날 강생의 신비를 높이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께 속해 있기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예속을 공경하고 본받기 위함이다. 이 예속은 특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포로이며 노예가 되시어 모든 일을 마리아에게 의존하셨던 이 강생의 신비에서 드러난다.

(나)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비할 데 없는 은총에 대하여, 특히 마리아를 당신의 지극히 훌륭한 어머니로 선택하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이다. 이 선택은 강생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가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의 노예가 지닐 근본적인 목적이다.”(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라농 드 몽포르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43항)

부 록 6

기적의 패

“그때 복되신 동정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양을 본 따서 패를 만들어라. 이 패를 축성 받아 몸에 지니는 이, 특히 목에 거는 이는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의 말을 신뢰하는 이에게는 은총이 차고 넘치게 내릴 것이다.’”(성녀 가타리나 라부레 St. Catherine Labouré)

레지오 단원은 기적의 패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한다. 레지오 조직의 역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레지오 최초의 주회합 때 1830년 형의 성모 성상(聖像)을 제대 위에 모신 것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성상은 레지오의 신심 개요를 종합하고 있었고 레지오 조직은 이 성상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나갔다.

그러자 레지오 활동에 기적의 패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패에 새겨진 호칭 기도가 레지오의 첫 주회합에서 바쳐진 이래, 지금은 까페나의 한 부분이 되어 모든 단원이 매일 바치고 있다. 이 패의 도안은 레지오의 백실리움에 들어 있다.

기적의 패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레지오 신심 체계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우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세심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섭리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인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덧붙여 생각해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기적의 패의 목적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신심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패는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재자의 역할도 맡고 계심을 드러낸다. 이처럼 기적의 패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 어머니이신 성모님, 중재자이신 성모님과 같이 레지오가 성모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기적의 패의 앞면에 새겨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모습은 뒷면에 새겨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모습에 의하여 보완된다. 전자는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이 없이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후자는 성모님께서 그 후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 이 패의 뒷면에는 예수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그려져 있다. 레

지오는 그 첫 회합 때부터 시작 기도를 바치면서 두 성심께 기도를 바치고 있다. 두 분의 성심 가운데 하나는 가시관으로 찢려 있고, 다른 하나는 칼에 찢려 있다. 그리고 두 성심 위에 얹혀 있는 십자가와 M자는 주님의 수난과 성모님의 연민을 상기시킨다. 레지오는 이 두 분의 공로로 얻은 은총을 성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전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 놀라운 사실은 파리 대주교 베르디에 추기경(Cardinal Verdier)이 레지오에게 허락한 알현에서 레지오를 승인하고 강복한 시기가 바로 성모님께서 가타리나 라부레 성녀에게 발현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지오가 이 기적의 패를 거의 레지오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레지오의 사명은 기적의 패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레지오 단원은 ‘살아 있는 기적의 패’로서, 성모님이 이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데 사용하시는 미천한 도구이다.

자신들은 ‘진보적’이고 ‘지성적’인 신자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안달이 나있는 특정 계층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기적의 패는 물론 그 밖의 패나 성의(聖衣, 스카폴라)를 미신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가 승인한 준성사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경솔한 행동이며, 또한 이 패를 착용하여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을 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레지오는 단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군사로 간주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이 기적의 패를 자신들에 주어진 탄약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 패가 레지오 단원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한, 성모님께서는 틀림없이 두 배의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입회식을 통하여 기적의 패 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 명부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기적의 패 회의 회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회에 주어진 모든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기적의 패의 성모님 축일은 11월 27일이다.

“성모님은 사도직 활동 자체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셨다.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고, 그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셨다. 이제 당신 아드님의 성령께서 사도들 위로 불꽃 모양의 혀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메시지로 사도들을 세상 끝 날까지 불

타오르게 하셨을 때, 그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온 자리에 성모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성모님의 역할은 미완으로 남았을 것이다. 성령 강림은 성모님의 영적인 베들레헴이자 다시 한 번 현현(顯現)하신 사건이다.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누워있는 구유 곁에 서 계시면서 목동들과 왕들에게 그 신비체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폴톤 신 주교 Bishop Fulton Sheen : 그리스도 신비체)

부 록 7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회

1.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회(the Confraternity the Most Holy Rosary)’는 묵주기도 20단을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바치는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결합시켜 주는 단체이다. 어떤 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회원들 간에 공유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로사리오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묵주기도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과 고통과 기도로 쌓은 공로를 성모님의 두 손에 맡겨 드림으로써, 성모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회원들이나 교회의 필요에 이 공로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게 한다. 로사리오회는 1470년 도미니코 회원인 알랭 드 라 로쉬(Alan de la Roche)가 설립하였다. 이 회를 촉진할 책임은 특별히 도미니코회 가족들에게 있기에, 로사리오회에 가입하는 자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적 은혜를 나누게 된다.

2.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이 회의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묵주기도를 열성적으로 전파하였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헌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설교자회(도미니코회)의 관구장인 본인은 제3회 회원인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이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어디서나 열성을 다하여 로사리오 회를 전파하고 건설하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3. 로사리오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로사리오회가 설립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회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대사와 특전을 누리려면, 기도중에 각 단의 신비를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묵상해야 한다. “묵상은 묵주기도의 영혼이다.”라고 가르친 분이 바로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다.

한 주에 적어도 20단을 바쳐야 하는 의무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죄는 아니다. 보통 하루에 바치는 묵주기도(5단)를 꾸준히 바치기만 해도 주간 의무량을 채우고도 남는다. 묵주 한 꿰미(20단)를 한꺼번에 바칠 필요는 없으며 각자 편리한 대로 한 번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바쳐도 된다. 로사리오 회원은 회합에 참석하거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로사리오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가) 로사리오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나) 전 세계 도미니코 수도회 및 로사리오회 회원들과 선행과 영적 은총을 함께 나눈다.

(다) 죽은 다음에, 죽은 회원들을 위해 바치는 동료 회원들의 연도(煉禱)와 대도(代禱)의 혜택을 나눈다.

(라) 다음과 같은 날에 전(全)대사를 얻을 수 있다: 로사리오회 입회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주님 봉헌 축일.

5. 로사리오회 회원으로서 받는 대사와는 별도로, 성당이나 공적 기도실에서, 또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와 함께, 또는 (레지오를 포함하여) 어떤 신심 단체 회합에서 묵주기도 5단을 한꺼번에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에는 한(限)대사의 은총이 주어진다.

6. 전대사를 얻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고해성사 - 고해성사 한 번으로 여러 번의 대사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나) 영성체 - 전대사를 얻고자 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다)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이나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기도를 바쳐도 조건을 충족한다. 전대사를 받고자 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되풀이해 바쳐야 한다.

(라) 그 밖에도 설령 소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한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 수도회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이 시들게 되면, 우리 수도회의 아름다움과 빛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꽃이 되살아나면, 하늘의 이슬을 우리 위로 끌어내려 우리 수도회의 줄기에 은총의 향기를 불어넣고, 덕성과 영광의 열매를 신심의 뿌리로부터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총장 몽루아 Monroy, O.P.)

부 록 8

가톨릭 교리 교육

일부 국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 교리 교육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명도회(明道會 the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가 맡아 오고 있다.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명도회 사업에 관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원들의 활동을 레지오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가톨릭 교리 교육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연령층과 모든 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교리 교육』 16항).

“본인은 본당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평신도 교사들에게, 또 전세계적으로 여러 세대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남성들과 그보다 숫자가 많은 여성들 모두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비록 겸손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습시다만 여러분은 뜨겁고 관대한 열성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탁월한 평신도 사도직의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종교적 양성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것은 각별히 중요한 사도직인 것입니다.”(『현대의 교리 교육』 66항)

“세 번째 교훈은 교리교육이란 지금까지 교회 전체가 책임을 느끼고 또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과업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원들의 책임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다채롭기 마련입니다. 각급 사목자들은 그 직책 때문에 교리교육을 장려하고 지도하고 조종하는 데 주요 책임을 집니다. 교황은 이 분야에서 자기에게 제1차적인 책임이 지워져있음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면에 교황은 사목상의 우려를 느낄 만한 소지들을 봅니다만 그래도 주로 기쁨과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현대의 교리 교육』 16항)

부 록 9

예수 성심 단주회

(제37장 참조)

(가) 현재 운영중에 있는 단주(斷酒) 센터가, ‘예수 성심 단주회(Pioneer Total Abstinence Association of the Sacred Heart)’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회원 모집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오의 뿌레시디움을 이 센터에 소속시키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뿌레시디움이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 홍보자료, 기록부, 회원증, 표장 등을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단주회의 회원 모집이나 등록 등에 관련된 활동은 레지오에서 정식 승인한 뿌레시디움의 활동이다.

(다) 회원 가입 신청은, 단주 센터에서는 월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레지오에서는 뿌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처리한다.

(라) 단주회에 관한 문의는 Central Director, Pioneer Total Abstinence Association, 27 Upper Sherrard Street, Dublin 1, Ireland로 보내면 된다.

신앙 공부

쁘레시디움 단원 중의 일부 또는 모두가 매주 각자의 활동에 덧붙여 공부를 한다면, 이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특수한 뽀레시디움의 경우에 공부는 필수적인데, 학교 내에 설립된 소년 뽀레시디움이나 교육을 전담 활동으로 수행하는 뽀레시디움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레지오의 강력한 기도 정신과 신심 체계는 공부하기에 알맞은 방법을 마련해 주며,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 준다. 자만심이 강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레지오에 입단하면, 얼마 동안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공부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레지오에 의하여 축출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레지오는 공부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단원들을 붙들어 주며 성장하게 해준다.

더구나, 성모님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공부한다면 성공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 하며 매우 겸손하고 순박하게 빛을 찾으신 성모님은 과연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이들의 완전한 모범이시다. 바로 이 겸손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지혜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참된 빛이신 주님을 받으실 수 있었다. 성모님은 이러한 보화의 수호자이시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얻고자 하는 단원들은 성모님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은 뽀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성모님과 한 덩어리가 되며, 자신들이 찾고 있는 지식의 보화를 가득히 지니신 성모님의 손에 자신들의 손이 맞닿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의 공부는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보다는 신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공부가 강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뽀레시디움 회합의 운영 체계가 강의식 공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이를테면 강사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공부도 해 오고 가르치기도 하는 책임을 몽땅 떠맡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히 해이해지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개 강의는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 쪽에 맞추어 진행되기 마련이므로, 나머지 대다수의 청중은 그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결국 대다수의 청중이 주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며, 사람들은 들은 것을 쉽

게 잊어버린다. 더욱이 강의를 잘하면 청중은 정신을 차리고 듣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기를 잃고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마저 나타나게 된다.

레지오에서는, 위에 말한 것과는 달리, 그 체계가 단원들로 하여금 해이해질 수 없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단원 각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하기 때문이다. 강의 방식에서 강사 한 사람에게 떠맡겨진 노력과 책임을 각 단원이 나누어서 지는 것이다. 물론 강사의 경우와 단원들의 경우, 그 노력과 책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강도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단원은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정신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는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각 단원의 영적 상태는 그의 발표로 점검받게 되므로, 영적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단원은 앉은 채로 발표한다. 그가 공부한 책은 그의 앞에 놓여 있고, 자신이 정리해 온 내용은 그 옆에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위에는 그의 자신감을 앗아 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말투로 자신의 생각과 문제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고 친근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다른 단원이 논평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의 발표가 다 끝나면 다른 단원의 발표로 넘어간다. 회합은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쏘살같이 달리는 것과 같지 않고, 쟁기와 팽이로 땀 흘려 땅을 일구어 내는 것과 같이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책 한 권의 한 장(章)을 파고 또 파다보면, 모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공부는 쁘레시디움의 일반 활동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레지오 정신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부를 통하여 쌓은 지식을 실제 활동에서 활용하도록 단원들을 독려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공부에 많은 실적을 올린 쁘레시디움은 교리반을 맡거나 교육을 담당하거나 또는 가톨릭 선교회 활동을 전담하게 하여, 단원들이 쌓은 특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 안에 틀림없이 신앙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단원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그들이 펴는 개인 접촉 활동이라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반드시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이로써 ‘하느님이 내리신 신앙에 대하여 무식한 가톨릭 신자라는 커다란 불명예를 퇴치하는’(비오 11세, 1923년 6월 29일 자의 교서) 길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책은 분명히 레지오 교본이다. 레지오 단원으로서 교본을 터득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다. 레지오 조직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는 물론 어

떤 종류의 활동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위에 공부라는 건물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 역시 헛된 일이다. 레지오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비로소 기초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교리, 호교론, 성서, 사회 과학, 전례, 교회사, 윤리 신학 등이다.

회합의 일정 부분을 - 대개 훈화가 끝난 다음을 - 공부 시간으로 배정한다. 회합 가운데 이 부분을 확고하게 틀을 잡아 공부가 산만한 토론으로 변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회합 때마다 단원들에게 다음 회합 때까지 공부해 와야 할 부분을 정해 준다. 단원들은 레지오 단원답게 아주 철저하고 헌신적으로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하게 되어 알맹이 없는 공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공부는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브레시디움은 일반 학교 교실이 아니므로, 공부를 아무렇게나 해 왔다 하더라도 어물어물 발표하고 넘겨 버리기 쉽다.

각 회합에서 단원들은 그 주간에 공부한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와 더불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운 문제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경솔하게 내놓는 일은 삼가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단원들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주회합에서의 토론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잘못되었거나 가당치 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여러 문제에 부딪혔을 때 브레시디움이 먼저 의지해야 할 사람은 영적 지도자이다.

단원의 활동 의무는 주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부로는 이 주간 활동 의무의 일부도 채울 수가 없다.

“순수성과 빛은 얼마나 밀접하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순수한 영혼에게 가장 많은 빛을 내려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되신 성모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빛을 받으신 이유이다. 성모님이 천사들을 깨우치신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을 ‘상지(上智)의 옥좌’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의 묵상, 우리의 모든 삶을 성모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모님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빛 중에 ‘빛’이신 분,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이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비할 수 없는 피조물인 성모님에게 태양의 옷을 입히시고, 성모님으로 하여금 당신 아드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쏟아 주도록 정하셨다.”(소뵈에 Sauvé :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맡고 계신 역할의 개요

다음은 구원 계획 안에 성모님께서 맡고 계시는 위대한 협조 역할에 대하여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다. 이 글은 아치에스 행사 때 단체 봉헌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도 (첫째 단락을 제외시킨 후)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문으로 사용해도 좋다.

저희의 모후, 저희의 어머니시여,

어머니가 지휘하시는 레지오의 깃발 앞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는 너무나 짧은 사랑의 표현밖에는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 놓고 어머니께 대한 저희의 사랑을 더욱 충실히 고백하려 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하여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매우 크고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낳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아직도 멸망한 세상의 암흑 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며, 이미 그 옛날에 내려진 죽음의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처럼 극도로 불행한 처지에서 저희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구원 계획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어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구세주께 완전히 의탁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협력자로 불리시고, 피조물로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며,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성삼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영원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예언에서 주님을 낳으실 여인으로 선포되었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도예 주님과 함께 참여하셨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어머니를 구원한 ‘원죄 없으신 잉태’의 은총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천사의 아킴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상 생애의 모든 신비 속에서 주님과 일치하셨고, 승천하신 후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며, 옥좌에 앉으신 주님 곁에 앉으시어 주님과 더불어 은총의 세계를 다스

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에 홀로 어머니만이 새로운 아담과 함께 원조들의 타락을 되돌려 놓을 새로운 하와가 되시기에 충분할 만큼 믿음과 정신이 맑고 굳건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젖으로 주님을 양육하시고,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튼튼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어머니를 만드신 주님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된 희생의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당신의 사명을 끝마치고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바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를 소원하셨으나, 어린 교회를 돌보기 위해 남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사업을 완성하는 일에 시종일관 주님의 떼어놓을 수 없는 협조자였던 어머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난날에 못지않게 주님과 함께 계시며 주님께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모성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된 모든 이를 받아들이시고자 그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을 양육하신 것처럼 인류를 양육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마침내 어머니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낳아 주실 때까지 어머니의 참을성 있는 돌보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 사업의 완성을 위해 당신 계획의 모든 부분에 어머니가 일일이 관여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따라서 어머니는 마땅히 저희의 기도 안에 포함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사랑과 봉사로써 보답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어머니께 지고 있는 빛이 많지만 그 빛을 갹으려는 저희의 마음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이제 저희는 정성을 다하여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라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덧붙여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이 차지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일치 공의회가 이번처럼 폭넓고도 하나로 통합된 교리로서 제시해 놓기는 처음이다. 이러한 조치는 거룩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의도한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성모님은 교회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공의회가 선언한 바와 같이 성모님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요, 가장 훌륭한 부분이며, 가장 특별한 부분이요, 가장 엄선된 부분이다.”(뤼페르 드 아푹 Rupert de Apoc)

“교회의 실체가 오로지 교계 구조나 전례, 성사나 법적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가 세상을 성화시키는 힘의 근원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결합은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긴밀하게 결합하기를 원하시는 마리아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교회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반드시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공들여 이룩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사랑을 담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성모님은 모든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이시며 신자들과 그들의 사목자들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교황 바오로 6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기 중에 하신 담화)

[위의 인용문은 ‘성모 마리아께서 맡고 계신 역할의 개요’의 한 부분이 아님]

성모님을 따르면 길 잃지 않고,
성모님을 부르면 실망치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해매지 않고,
성모님이 붙드시니 떨어질 리 없네.
성모님이 감싸면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아,
성모님의 도움으로 목표에 이르네.

(성 베르나르도)

“Per te, O Maria, resurrectionis nostrae tesseram certissimam tenemus.”
(St. Ephraem)

“오, 마리아! 저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부활의 징표를 지니고 있나이
다.”

(성 에프렘)

나는 보았네,
장미꽃에 어린 주님의 피를.
그 눈의 영광은 별빛 속에 영롱하고
순백(純白)의 영원 속에 그의 몸은 빛을 뿜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신의 눈물이어.

나는 보았네.
꽃송이 송이 안에 주님의 얼굴,
천둥과 새소리도 당신 목소리.
바위엔 권능으로 당신 말씀 입히시고
어딜 가도 느껴지는 당신 발자취.
고통의 심장 박동
바다 물결 일게 하고,
온 세상 가시나무 주님 머리 찌르니
나무 하나하나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일세.

- 요셉 마리아 플랑켓 Joseph Mary Plunkett -

레지오 마리아 공인 교본

2000년 2월 3일 교회 인가

2000년 3월 15일 초판 펴냄

2000년 6월 25일 초판 2쇄 펴냄

지은이/콘칠리움 레지오니스

옮긴이/한국 세나투스 협의회

펴낸이/정진석

펴낸곳/가톨릭출판사

편집 겸 인쇄인/홍문택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2

등록/1958. 1. 16. 제2-314호

전화/(02)3609-114(대)

지로번호/3000997

중앙보급소 (02)3609-178, 179/FAX 3609-190

명동성당보급소 (02)776-3601, 3602/FAX 776-1019

가톨릭회관보급소 (02)777-2521/FAX 777-2520

수원지사 (0331)254-4105/FAX 254-4106

미주지사 (213)383-3389/FAX (213)383-3358

캐나다지사 (905)607-8808(FAX 겸용)